



“출발!”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성 죽산면 길을 달리고 있다(왼쪽 사진). 어르신들도 이날 바깥 나들이에 나섰다. 모두들 마라톤대회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졌다.

# ‘孝’ 정신으로 하나된 축제한마당

## 연꽃마을 ‘장애노인을 위한 효사랑 마라톤대회’ 개최

경기도 안성 죽산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5월 25일 아침 뽀짝뽀짝 흙먼지가 일어난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 갑로당과 실비노인요양시설 보은당이 위치한 이곳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장애노인을 위한 2008 전국 효사랑 마라톤대회’가 그것이다.

이날 행사는 타이틀 그대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 사회의 ‘효(孝)’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 ‘마라톤’이라니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마라톤이 젊은이들이 즐기는 운동이라는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이번 행사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스님의 생각은 이랬다.

“몸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대해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죠. 게다가 노인요양시설을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젊은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이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찾아와 직접 실상을 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의 생각에 답하듯,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리고자 하는 약 15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했다. 연꽃마을 산하 시설 직원들도 당연히 참석했지만 절반가량은 멀리 태백, 온양,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마라토너들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뜻 깊은 행사가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며 한바탕 웃음이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했다. 시의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장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생수 3000병을 지원하기도 했다.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치고, 각현 스님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리지”는 개회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출발대에 섰다. 출발은 하프마라톤, 10km, 5km 순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쟁과 기록보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지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넘쳤다. 드디어 “똥” 소리와 함께 출발! 참가자들은 표장도로와 비포장도로가 섞인 시골길을 힘차게 달려 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어린이 참가자가 많았다.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아서였다. 연꽃마을 산하 시설인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선 스님도 복지관 공부방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평소 축구 등 운동에 소질을 보여준 석민(13)이는 시작 전부터 스님에게 “꼭 1등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진짜 5km 어린이부문 1등으로 들어왔다. 도선 스님은 “석민이가 108배도 그렇게 잘하더니, 해냈다”면서 흐트란 미소를 지었다.

연꽃마을 시설 어르신들도 신이 났다. 평소 거동을 잘 못해 답답했던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자원봉사자들과 바깥 나들이에 나선 것. 어르신들은 길 한 칸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 어르신들

의 박수에 고무된 참가자들은 어르신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는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갔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점점한 사람씩 도착선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포츠 경기다 보니 순위도 매겨졌다. 1등, 2등, 3등... 상위권으로 도착한 사람들의 기쁨은 당연히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회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면서 느낀 보람과 기쁨이 더 크게 작용된 것 같았다.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밝은 모습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느낀 따뜻한 마음도 모두 함께 훈훈한 공기를 만들어 냈다.

이날 대회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현 스님은 앞으로 이 대회를 정례화 하려고 생각 중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니 고개를 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전문법인인 만큼 ‘효’라는 가치가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안성/글·사진=김강진 기자



## “회향할 수 있어 행복해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좋아했던 소년, 이제 노인이 됐다. 항상 꿈꿔왔던 불지로서의 삶, 회향하는 삶으로 노년기를 맞고 있는 그는 서울 관문사신도회장 이금복(70)씨다. 부지런하기로 따지자면 어디서든 빠지지 않을 이씨는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수탁한 단양군 실버하우스 원장내정자기도 하다. 지금까지 천태종 복지재단 감사(監査)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을 올 10월 실버하우스가 개관하면 유감없이 발휘할 태세다.

### 서울 관문사신도회장 이금복씨

이씨는 알고 보니 공무원 출신이었다. 40년 동안 청와대 민정팀과 감사원에서 일한 그는 2000년 공직 은퇴와 동시에 천태종 복지재단 감사로 위촉됐다. 공직에 있던 시절부터 그는 사람 돕는 일을 유독 좋아했다. 특히 민정팀에서 일할 때는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을 보냈다. 1984년부터 5년간 민정팀에서 ‘일일일선(一日一善)’을 몸소 실천 하고자 서원했던 그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받게 해주고, 이씨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그런데 감사원에 있을 땐 ‘이 일이 나를 즐겁게 하는 직업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늘 부정을 찾고 지적해야 하니 까요. 그래서 그런가,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았으니 사회에 환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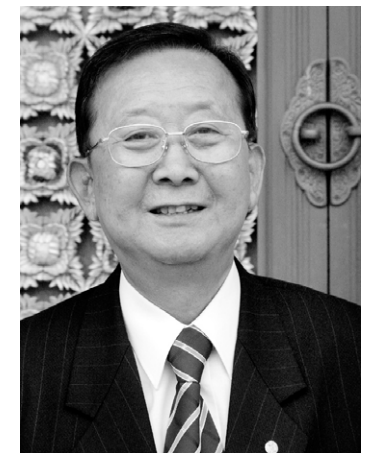
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은퇴는 이제

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해냈다. 복지재단에서의 첫걸음은 이씨 자신의 주특기(?)인 회계·재정분야. 그의 노력 덕에 천태종 복지재단은 회계·재정체계를 확립했다.

그렇게 복지와 인연을 맺은 그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사를 취득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천태 저비손’을 조직해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몽골에 헌우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갖춰나갔다.

그는 요즘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노인 수발을 위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두기 위해서다. 경기대에서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종이나라에서는 종이접기와 클레이아트(찰흙미술)를 각각 배우고 있다. 여가다 관문



사 신도회장까지 맡고 있는 그는 큰 절살림 챙기랴, 사회복지 공부하랴 정신이 없지만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 말한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두는 게 좋지요. 이렇게 배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더 좋

고요.”

앞으로 이씨는 실버하우스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 것일까. 그는 “사람들이 흔히 노인 문제에 대해 빈곤이나 질병만 생각하는 데, 사실 ‘고독’이 가장 큰 문제”라 짚아 말한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넬으로써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노인복지다.

이씨의 복지 가치관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 특히 불교복지에 대한 포부가 아주 크다. 그는 ‘배려와 나눔’이 있는 세상을 꿈꾼다. 과다 경쟁사회 속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결핍 없는 복지 말이다.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자비는 대상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으니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상 속에서 꽃피우는 복지행이 널리 퍼져 우리 자신의 행동을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장애노인’ 돌기에 장애인 마라톤 선수들이 출전했다. 그 주인공들은 영화 ‘맨발의 기쁨’이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엄기봉(44)씨와 마라톤 풀코스(42.195km) 130회 완주로 유명한 시카고 마라토너 이용술(49)씨, 지체장애인 마라토너 천기식(47)씨 등 3인이다. 엄기봉씨는 마라톤 이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주, 많은

## “장애의 벽 넘어 꿈을 향해 달려요”

마라톤대회장서 만난 장애인마라토너 엄기봉·이용술·천기식씨

박수를 받았다. 유명인이다 보니, 곳곳에서 엄씨의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용술씨와 천기식씨는 우리나라로

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장애인 마라토너들이다. 특히 이씨의 경우, 시카고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하라·고비·아타카마 사막과 브라질 정글을 누비

고 다녀 미국 유명 경제지인 ‘포춘(Fortune)’지 표지모델로 등장한 이력이 있다. 이씨는 “20대에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마라톤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울분을 많이 풀어냈다”며 “장애인들도 꿈을 꿀 수 있고, 눈이 안 보여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쁘게 했다”고 말했다.

#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저자거리 포교원 개원 3주년기념 운산큰스님 초청법회

저자거리포교원을 표방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상가 2층에 2개의 교회와 나란히 지역사회 교회활동과 “불교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를 해 온 열린선원이 어느덧 세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9기까지의 3개월 과정 열린불교아카데미, 무료합동 천도재, 거리포교, 한글법요집 발간, 부부나눔 노래 출간, 명절 차례 제대로 지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해 왔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자 다음과 같이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명 : 열린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
- ◆ 날짜 : 6월 6일 (금, 현충일) 오후 2시 ◆ 장소 : 열린선원 큰법당
- ◆ 내용 : 제1부 | 운산 큰스님 초청법회  
제2부 | 축하 공연(강형진 - 바이올린, 한계명 - 판소리, 권혜준 - 소프라노, 한인석 - 대금산조, 문소희 - 어린이, 한재경 - 클라리넷)

- ◆ 문의 : 열린선원 02)386-4720, 386-4755  
은평구 갈현동 467-1 (지하철 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역촌중앙시장 건물 2층)
- ◆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화환보내실 성의는 아래 계좌로 성금으로 보내시면 모아서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 위로성금으로 보내겠습니다. 국민은행 429501-01-266034(열린선원)
- ◆ 청신녀 여안 김옥희보살 상사에 보여주시는 깊은 사랑 감사드리며 49재는 오전에 한글의식과 음악법회로 봉행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 연지회(매주 토요일 오후)
- 전가초초법회(첫 일요일 오전)
- 중앙대동문가족법회(셋째 일요일 오전)
- 제10기 열린불교아카데미(7월 5일 개강)
- 명절차례시연(9월 7일 킨텍스)